

韓國 加髻樣式의 變遷科程과 特性에 관한 연구

임 린* ·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Gagye Style

Lynn Yim* · Eun-Jung Kim⁺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5. 7. 14 투고)

ABSTRACT

This study shows historical Gagye(加髻) The process of change and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n the old documents, related papers, and visual data, and represents its meaning in Korean Clothing history through analysis on originality of Korean Gagye(加髻) style.

Gagye(加髻) is the cubic hair style which add other accessories on hair and is divided into two; Gagye(假髻) and Chegye(髻髻) according to its material, role, and function. And Korean Gagye(加髻) has been transformed suited to the times and showed various features according to pattern, wearing, and decoration aspect.

In its style aspect, Korean Gagye(加髻) style shows Hwangye type, Sseugae type, Gogye type, Dage type, and Braided & coiled hair type. Each shows historical features. In its Wearing aspect, Gagye(加髻) style shows Wearing ornamental hairpin on the head, Wearing Rag Ribbon on the head, and Attaching (Detaching) Wearing. And in its Decoration aspect, Gagye(加髻) style shows decoration with accessories, one with flower arrangement, and one with shaking.

Key words: Gagye(가계:加髻), Gagye(가계:假髻), Chegye(체계:髻髻)

I. 서론

고대부터 머리에 착용되었던 수식물이나 장식품이 착용자의 권위나 신분을 상징하였던 예는 출토 유물이나 문헌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관모가 그러한데 고대사회일수록 관모는 신분, 계층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회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었고, 여성의 가계(加髻) 역시 관모에 상응

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유물이나 문헌에 나타난 가계는 착용여성의 신분을 나타내었으며, 부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아름다움의 표본을 이루었다. 이는 가계가 단순한 두발양식이 아닌 의례적, 사회적, 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자복식의 일부분임을 시사한다.

이렇듯 한국 가계가 여자복식의 하나로 발전하였음은 『東史綱目』¹⁾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유추된

다. 즉, 한국 가계는 고조선시대 이전부터 기원하여 초기형태를 갖추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선시대 가계의 기원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한국 가계가 중국 은(殷)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거나,²⁾ 중국 왕후의 수식(首飾)인 부편차(副編次)³⁾에서 기원한 외래양식으로 간주하여 후대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미적 측면만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한국 가계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은 한국 가계양식에 관한 연구의 근간을 이루었고, 부분적이거나 시대별 가계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유봉영⁴⁾, 김정자⁵⁾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성의 두발양식 중 하나로 가계를 다루었으며, 고미연⁶⁾은 가계를 조선시대의 주요 두발양식으로 제시하였고, 김용문⁷⁾은 동아시아 국가별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가계를 한국의 조선시대 두발양식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계에 관한 개념을 정립시키지 못하였으며, 시대에 따른 한국 가계양식의 특성을 분석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에 관한 고문헌과 출토유물, 시각자료 및 선행연구, 주변국인 중국자료 등 가계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복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가계의 개념 및 시대별 가계양식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한국 가계양식의 특성을 형태적, 착장적, 장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II. 가계의 개념

가계(加髻)는 두발에 다른 소재를 부가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 두발양식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계라는 용어는 가계양식이 다양한 만큼이나 유사한 여러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어 특정한 기준이나 구분없이 혼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체(髻)를 더한다는 의미의 가계(加髻), 체를 땀아 올렸다는 뜻의

변체(變體), 체를 땀아 계를 만들었다는 변계(辨髻), 계를 올린 형태가 높았음을 의미하는 고계(高髻)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한국복식사에서 가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들은 조선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체(髻)와 관련된 명칭들에 익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⁸⁾을 비롯한 여러 문헌 등에 나타난 가계(加髻)의 자의(字意) 해석 그대로 계를 더할 때 비단 체(髻)만으로 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소재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 여성의 수식(首飾) 중에서 관모나 장식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품목들이 가계(加髻)의 범주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에 한국 가계(加髻)는 가계(假髻)와 체계(髻髻)로 구분하고자 한다. 가계(假髻)라는 용어는 사람의 두발(頭髮)을 비롯한 지질(紙質), 목재(木材), 흑사(黑絲), 금속재(金屬材), 직물(織物) 등 다양한 소재에 의해 만들어져 본발(本髮)에 덧붙이는 양식⁹⁾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 목재와 지질로 만들어진 의계(義髻), 명대(明代) 금속재로 만들어진 발고(髮鼓), 청대(清代) 직물로 만들어진 가자두(架子頭) 등 다양한 계양이 착용되었고 이를 가계(假髻)라 하였다.¹⁰⁾ 한국에서도 가계(假髻)는 『芝峰類說』, 『瓶窩集』 등에서 본발(本髮) 이외의 소재를 덧붙인 계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문헌에 나타난 가계(假髻)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계양임을 나타내면서도 유독 조선시대 체(髻)를 이용한 가계(加髻)에는 가계(假髻)와 구별되는 체계(髻髻) 혹은 유사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 비해 한국의 조선시대 체계가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성행하였던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가계(加髻)에 부분적으로 체(髻)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체 이외의 다른 소재가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가계(假髻)로, 순수 체(髻)만을 이용한 가계(加髻)를 체계(髻髻)로 분류하였다.

1. 가계(假髻)

가계(假髻)는 가계(加髻)의 하나로, 사람의 두발, 지질, 목재 등을 이용하여 만든 계양(髻樣)을 말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되었던 가계(假髻)는 형태와 소재의 활용이 다양했던 만큼 시각에 따라 관모(冠帽)로 간주되거나 쓰개류 및 수식류 혹은 단순히 체를 더한 체계(髻髻)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삼국시대 건귀(巾櫃)은 지금까지 관모로 알려져 있으나, 귀(櫃)를 부인의 머리장식으로 보는 『說文解字』¹¹⁾의 해석과 『釋名』¹²⁾에서 건귀(巾櫃)가 복발식(覆髮式)이라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쓰개형식의 가계(假髻)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신·고춘명(周汛·高春明)¹³⁾은 건귀(巾櫃)가 가계(假髻)의 일종이며, 사용할 때 단지 머리위에 씌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건귀는 주신·고춘명이 밝힌대로 사람의 두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였지만, 한대(漢代)에는 견사(絹絲)를 사용하여 짜여졌는데(編) 완성되었을 때 직물과 같은 모양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대(漢代) 귀부인은 감색 견포로 만든 감증귀(紺纒櫃)이라는 건귀를 착용하였다¹⁴⁾고 하여 건귀를 직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건귀는 가발이나 직물에 의해 만들어져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착용이 자유로웠던 가계(假髻)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화관과 족두리는 여자의 관모(冠帽)로 보는 시각과 궁중양식으로 남은 미적 수식품으로 보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이는 화관과 족두리가 쓰개형식을 갖추면서도 일반 관모와는 달리 두상에 완전히 씌워지지 않는 형태적 특성과 외관의 다양한 장식에 따른 미적 기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화관과 족두리를 관모나 수식품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나 『芝峰類說』¹⁵⁾의 기록은 화관과 족두리를 가계(假髻)로도 볼 수 있게 한다. 『芝峰類說』에는 태원년간(太元年間: 晉代) 가발(假髮)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많아 무거워서 항상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목룡(木籠)으로 장식해 놓고 이를 가계(假髻)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인들이 가수(假首)를 쓰는 것도 대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권계순¹⁶⁾은

초기에는 체(髻)만을 쓰니 무거워 견디기가 곤란하므로 후에 목룡(木籠)을 머리위에 얹어 계(髻)를 짜 올렸고, 목룡 대용으로 족두리와 나무틀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관모가 머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여 단순한 장식이나 실용성의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신분, 계급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회적 의의가 컸던만큼¹⁷⁾ 화관과 족두리는 관모만으로, 혹은 단순한 수식품(首飾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며, 이들을 지질과 목재로 만들어진 의례적, 사회적, 미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가계(假髻)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이와 함께 하류계층의 쓰개로 알려진 차액은 『瓶窩集』¹⁸⁾에서 가계(假髻)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경북 달성군 진주하씨(晉州 河氏: ?~1652)의 묘를 이장하던 중 출토된 서간(書簡)에서는 남편인 꺾씨가 부인 하씨에게 차액으로 머리를 단장하도록 권유하고 있다.¹⁹⁾ 또한 신윤복의 《기생도》〈그림 5〉에서는 차액 위에 전모(髻帽)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계(假髻)인 차액으로 단장하고 쓰개인 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궁중에서 착용된 대수(大首), 거두미(巨頭味), 어유미(於由味) 역시 단순히 체를 더한 양식과 구분되는 가계(假髻)로 볼 수 있다. 대수는 체를 비롯한 다양한 장신구를 이용하여 만든 의례용 가계(假髻)로 형식과 착용용도, 기능면에서 단순히 체를 더한 체계(髻髻)와 구별된다. 또한 거두미는 정조3년 소재를 체(髻)에서 목재로 대체하였고, 어유미는 어엽족두리를 쓴다는 점에서 체계(髻髻)와는 다르다. 실제로 『瓶窩集』²⁰⁾에는 거두미와 어유미를 가계(假髻)로 보고 있으며, 김용문²¹⁾은 어유미가 일명 꺾계(齧髻), 가계(假髻) 등으로 불렸다고 하였다.

이에 건귀를 비롯한 화관, 족두리, 차액, 대수, 거두미, 어유미 등을 가계(假髻)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체계(髻髻)

체계(髻髻) 역시 가계(加髻)의 일종으로, 체(髻)를 더해 꾸민 두발양식이다.²²⁾ 이때의 체(髻)는 윗

자(月子), 다리, 다래, 달비라고도 불렀고,²³⁾ 주로 두발 술이 적은 여자들이 두발에 덧드려 댔던²⁴⁾ 가계(加髻)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계양식인 체계(髻髻)와 소재로서의 체(髻)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체계(髻髻)는 가계(加髻)의 소재를 뜻하는 체(髻), 수체(首髻), 체자(髻子), 체발(髻髮), 가발(假髮), 가체(加髻) 등의 용어와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髻)라는 용어는 『三國史記』²⁵⁾의 기록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이 기록에서의 체(髻)는 가계(加髻)에 사용되었던 소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髻)는 가계(加髻)의 소재로, 체계(髻髻)는 체(髻)로 만들어지는 가계(加髻)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Ⅲ. 시대별 가계양식

1. 상고시대 가계양식

상고시대 가계(加髻)에 관해서는 후대의 고문헌에 남아 있는 단편적인 기록만이 유일한 자료로 당시의 가계양식을 상세히 고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고시대는 한국 가계가 기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한국과 주변국이었던 중국의 문헌 및 유물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상고시대의 초기 가계양식은 두발을 더욱 길게 하거나 풍성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인의 두발에 체(髻)나 기타 소재를 더하는 형태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三國志』²⁶⁾와 『後漢書』²⁷⁾의 문헌에서 당시 한국인들이 장발(長髮)과 미발(美髮)을 중시하였던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고시대 유물에서는 이러한 가계(加髻)의 초기형태를 직접적으로 살필 수 없으며, 다만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유물에서 변발(辮髮) 형태의 두발 끝단에 가발(假髮)과 끈을 연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주신·고춘명(周汎·

高春明)은 가계(加髻)의 초기형태로 보았다.²⁸⁾

이렇듯 한국에서도 상고시대 가계양식의 초기형태는 두발을 길게 하기 위해 다른 소재를 더하거나 풍성한 두발을 위해 체(髻)를 부가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본다. 이는 우리 민족이 묘족(苗族)과 함께 추결(椎結) 즉, 상투를 하는 민족으로²⁹⁾ 두발을 함부로 자르지 않고 소중히 다루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海東繹史』³⁰⁾에서는 삼한(三韓)의 부인이 반발(盤髮)하여 장식하고, 미혼녀는 말아서 뒤에 드리웠는데, 모두 아계(鴉髻)를 만들며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운다고 하여 상고시대 가계양식의 일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아계(鴉髻)의 아(鴉)는 까마귀와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³¹⁾으로 아계(鴉髻)는 까마귀가 날개를 펼쳐 날고자 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두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계(鴉髻)는 또한 아계(丫髻)로 바꿔 쓰이기도 하는데, 아계(鴉髻)가 까마귀 날개에 비유되었다면, 아계(丫髻)는 좌우 한 개씩 가지가 뻗쳐 있는 나뭇가지 형태의 두발양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두발을 좌우로 갈라 양쪽 끝을 위로 붙잡아 매어 만든 형태³²⁾로 유추된다.

후대에 아계(鴉髻)는 어린아이나 특수계층의 두발양식으로 성행하여 계집아이나 계집종을 대변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나³³⁾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성인도 아계를 하였다라는 기록을 접할 수 있다.³⁴⁾ 한국에서는 위의 『海東繹史』 기록에서처럼 부녀자가 두발을 장식하여 아계를 하였으며, 따라서 아계는 상고시대 체(髻)를 연결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발전한 초기형태의 가계양식으로 볼 수 있다.

2. 삼국시대 가계양식

삼국시대 가계양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양식이 거의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외부문물의 유입경로나 복식문화가 유사성을 띄었기 때문이다. 복식문화의 유사성은 『北史』³⁵⁾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삼국의 풍속(風俗), 형정(刑政), 의복(衣服) 등이 동일

하였다는 기록으로도 확인되며, 유물에서 보여지는 두발양식과 수식은 삼국시대의 공통된 복식문화를 보여준다³⁶⁾고 생각된다.

따라서 『新唐書』³⁷⁾와 『太平御覽』³⁸⁾의 기록에 서와 같이 신라 여인들이 아름답고 긴 두발을 다양한 채색의 진주로 장식하였던 것이나 남자들은 머리를 깎아 팔고 모자로 흑건(黑巾)을 썼다는 내용은 삼국 가계양식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 가계(假髻)

삼국시대 가계양식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무덤벽화에서 보이는 가계양식은 한국 가계양식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예로 삼국시대 가계양식의 발전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가계양식은 고구려 궁중양식으로 짐작되며, 중국의 영향 속에서도 고구려적 색채를 지닌 상류계층의 양식으로 생각된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계(假髻)의 형태는 중앙에 높게 머리를 묶어 세우고 둥근테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펼쳐 놓은 양식이다. 외형적 형태만으로는 조선시대 궁중양식인 거두미(巨頭味)를 연상하게 한다.

각저총과 삼실총에서 볼 수 있는 가계양식은 직물로 짜여졌으며, 계양(髻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완전히 덮는 복계식(覆髻式)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계양식은 이여성이 『舊唐書』³⁹⁾의 기록에 근거하여 건궤(巾幘)이라고 명명했던 것으로 관

모가 아닌 가계로 볼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다.

2) 체계(髻髻)

감신총 벽화에 나타난 체계는 머리중앙 일부가 훼손되어 두발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두발을 모두 잡고 체를 더해 높게 빗어 결발한 가계양식으로 볼 수 있다.

진파리4호분과 안악3호분에서 보이는 가계양식은 계가 두 개나 세 개로 만들어진 형태인데, 진파리4호분 가계양식은 계가 두 개로 이루어져 상고시대 아계(鴉髻)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며, 이것이 성인 부녀자에게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악3호분의 시녀와 행렬도 여인들에서 볼 수 있는 계가 세 개인 양식은 체를 더한 작은 계를 머리에 얹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벽화의 상태가 양호한 안악3호분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안악2호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체계는 양쪽 볼로 두발의 일부를 남기고 얹은 형태로, 체를 더하여 얹은머리를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시대 가계양식

고려시대는 복식사자들이 말하는 복식사의 공백기로 현존하는 문헌자료와 유물자료가 부족하여 고려시대의 가계양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高麗史』⁴⁰⁾에서는 장발자(長髮者)만 보면 반드시 그 머리털을 깎아 체(髻)를



안악3호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39.

각저총, 『한국미술전집4(벽화)』 p. 71.

<그림 1> 삼국시대 가계(假髻)



안악3호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38.

안악2호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212.

<그림 2> 삼국시대 체계(髻髻)

만드니 많기가 두집이나 되었다고 하여 가계를 만들기 위한 체의 소요양이 매우 많았음을 밝혀주며, 단편적이거나 당시 가계의 발달정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1) 가계(假髻)

고려시대 가계양식은 불교의 성행으로 인해 발달한 불화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화의 대부분이 고려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고려초기의 가계양식을 살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 숙종3년(1098)에 제작된 불화의 일종인 목판화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의 총 80권 중 제75권에 그려진 왕비는 둥근 환계(環髻)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양식은 고려후기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림 3>에 제시한 관경변상도 왕비의 가계양식에서 살필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가계(假髻)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補閑集』⁴¹⁾에서 살필 수 있으며, 기녀들이 화관(花冠)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관은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 가계(假髻)로 정착되었다.

2) 체계(髻髻)

체계와 관련된 기록에는 『後東國李相國集』⁴²⁾과 『東文選』⁴³⁾의 계아(髻丫)나 관(巾), 쌍각기아록고(雙角歧丫綠髻)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여동(女童)이나 특수계층이 착용하여 고려시대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계를 이룬 체계가 부녀자에게 착용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대덕사 수월관음도의 가계양식은 삼국시대 벽화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체를 더해 정수리 부분에 계를 높게 올린 형태이다. 이러한 가계양식은 건류(巾類)에 의해 고정하였으며, 여분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유물로는 하회가면(河回假面) 중 각시탈을 들 수 있다. 하회가면은 12C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땅은머리를 두상에 올리고 남은 여발을 양볼 옆으로 늘어뜨려 <그림 4>에 제시한 관경변상도의 공양인 두발양식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이렇듯 체를 더해 두상에 올렸던 체계는 고려시대 운고(雲髻)⁴⁴⁾, 잠운고(簪雲髻)⁴⁵⁾, 운진(雲鬢)⁴⁶⁾ 등의 명칭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다량의 체를 부가하여 구름같이 확대된 체계를 두상에 얹었을 것으로 본다.

4. 조선시대 가계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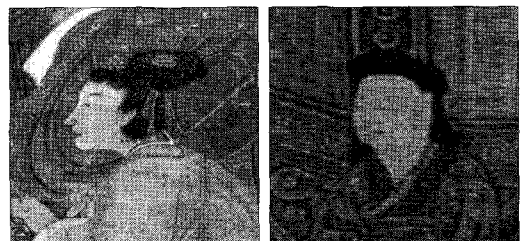
조선시대는 가계양식의 규모가 확대되고 장식이 과다해졌다는 점과 『加髻禁止令』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가계양식의 최고 성행기로 간주되고 있다. 조선시대 가계양식은 체(髻)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풍조를 이루며 당시 부녀자들 사이에서 매우 성행하였다. 이를 보여주듯 『朝鮮王朝實錄』⁴⁷⁾에는 성중(城中)의 고계(高髻)가 1척(尺)으로 높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렇듯 체계(髻髻)가 과도하게 유행하면서 각종 폐단을 야기하게 되었고, 폐단의 실례들이 『英祖實錄』⁴⁸⁾이나 『靑莊館全書』⁴⁹⁾를 통해 기록되어 있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해인사), 『고려화엄경변상도』 제75권
관경변상도(일본 대은사), 『한국의 미7(고려불화)』 p. 1.

<그림 3> 고려시대 가계(假髻)



수월관음도(일본 대덕사), 『고려불화』 p. 37.
관경변상도(일본 지은원), 『한국의 미7(고려불화)』 p. 3.

<그림 4> 고려시대 체계(髻髻)

다. 이러한 폐단들은 가계양식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을 일으키면서 《加髻禁止令》을 내려지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髻髻)를 대체할 다양한 가계(假髻)을 접할 수 있다.

1) 가계(假髻)

조선시대 가계(假髻)로는 궁중 의례시에 사용되었던 대수(大首)를 들 수 있다. 대수는 중국 명(明)에서 사여된 왕비의 관(冠)을 대신하여 착용한 것으로, 체를 이용하여 긴머리를 어깨까지 말아올린 후 양끝에 봉잠(鳳簪)을 꽂고, 뒷머리 가운데 두발을 두 갈래로 땅아 머리의 앞부분에 뿔잠과 봉잠으로 장식한 양식⁵⁰⁾이다. 대수가 왕비의 관을 대신하여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조선초기부터 왕비의 관을 착용하는 데에는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⁵¹⁾ 이후 임진왜란(壬辰倭亂) 과정에서 소실된 왕비의 관이 복원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수는 왕비의 의례용 가계(假髻)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²⁾ <그림 5>는 영왕비가 대수를 착용한 모습이다.

또한 거두미(巨頭味·舉頭美)는 큰머리라고도 하는데, 정조대에 내려진 《加髻申禁節目》에서 명부(命婦)의 가계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두미의 형태는 앞가리마 위에 첩지를 매고 그 위에 어염족두리를 올려놓으며, 체를 일곱쪽지로 땅아 엮고, 양끝을 등글게 구부려 만든 환계(環髻)를 덧붙인다. 《加髻禁止令》 이후 거두미에 부착되었던 환계가 목재, 일명 떠구지로 대체되는 소재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어유미(於由味·於汝美)는 어염족두리를 쓰고 체를 머리에 두르는 형태로 외명부의 가계(假髻)였다.⁵³⁾ 어유미에 대해 《加髻禁止令》 이후 『正祖實錄』⁵⁴⁾에서 '단계(單髻)'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加髻禁止令》 이전에 여러번 감아 올려 매우 큰 형태였던 것이 후대에 올수록 체(髻)의 양을 줄여 간소한 형태로 변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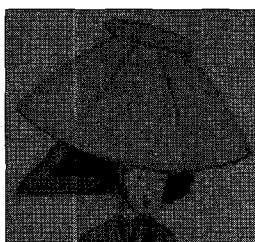
이외에 화관(花冠)은 『世宗實錄』⁵⁶⁾과 『樂學軌範』⁵⁷⁾을 통해 궁중무용과 관련하여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加髻禁止令》 이후 체계(髻髻)를 대신할 가계양식으로 제안되면서 혼례와 같은 의례에서의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화관은 한국 가계(假髻) 중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조화(造花)를 이용한 화려한 양식을 접할 수 있다.⁵⁸⁾

족두리(蔴頭里·足頭理·族頭裏·族頭伊)는 다양한 한자표기로 나타나기도 하며, 족두(蔴兜), 족관(蔴冠)으로도 불렸다. 화관과 마찬가지로 《加髻禁止令》 이후 착용이 권장되면서 원래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착용되었던 양식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었다.⁵⁹⁾ 족두리는 첩지머리 위에 고정시켜 착용하며, 혼례나 상례, 제례 등 착용용도에 따라 소재의 차이를 보였고, 산호, 민화, 진주 등으로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여 영조39년에는 체계를 부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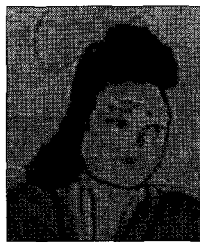
차액은 수파(首吧), 가리마(加里兀·加尼磨)로도 불렸으며, 방언으로 떡(饜)이라고도 하였다.⁶⁰⁾ <그림 5>에서와 같이 책을 두른 형상으로 체계 위에



영왕비,
『우리웃 이천년』 p. 89.



신윤복 <기생도>,
『한국의 풍속화』 p. 197.



신말주 <계회도>,
『15세기 복식의 양식과 특성』 p. 10.



송주거사 <미인도>,
『한국의 풍속화』 p. 406.

<그림 5> 조선시대 가계(假髻)

<그림 6> 조선시대 체계(髻髻)

없거나⁶¹⁾ 편지봉투 형상으로 머리를 덮는 형태를 지녔다.⁶²⁾ 차액은 광해군 이후에 족두리로 대체되면서⁶³⁾ 그 사용이 현저히 줄었으며, 의녀나 기녀와 같은 하류계층에서만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체계(髻髻)

조선시대 체계는 고려시대의 양식이 어느정도 유지되어 체를 더한 두발을 정수리 부분에서 높게 결 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양식은 정식부인상(鄭獻夫人像) 이외의 조선초기 유물자료에서는 살필 수 없다. 또한 아계(丫髻)와 같은 여러개의 계를 더한 양식은 관(冠)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부녀자의 가계양식으로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말주(申末舟) 《계회도(契會圖)》와 백자인물명기에서 볼 수 있는 체계는 체를 더한 머리를 땅거나 땅지않은 상태로 두상에 얹고 양쪽으로 여발을 늘어뜨린 형태이다. 즉, 삼국시대 벽화나 고려시대 불화에서 볼 수 있는 체계가 조선초기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중기를 넘어서면서 체계(髻髻)는 <그림 6>과 같이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계양식은 《加髻禁止令》에서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에서 족두리나 화관의 착용이 제안되었고, 첩지머리는 족두리와 화관을 고정하기 위한 두발양식으로 궁중에서 착용하게 되었다. 또한 조짐머리나 후계와 같은 체계는 계의 위치가 뇌후(腦後)에 있어 체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체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는 새로운 가계양식으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본발(本髮)에 의한 계양(髻樣)이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가계양식으로 보인다.

IV. 한국 가계양식의 특성

한국 가계양식의 특성은 시대에 따라 형태적, 장식적, 장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1. 형태적 측면

한국 가계양식은 형태에 따라 환계형(鬘髻形), 쓰개형, 고계형(高髻形), 다계형(多髻形), 없은머리형으로 분류하였다.

환계형은 가계(假髻)에서 나타나며, 두상의 양쪽으로 둥글게 환계(環髻)를 더한 양식이다. 철사나 기타 소재를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체를 더하거나 목재로 형태를 이룬다. 삼국시대에는 환계(環髻)의 형태가 두상에 누운 타원형태이나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는 두상의 뒤쪽에 세운 나비형태로 변화를 보였다.

쓰개형 역시 가계(假髻)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체(髻)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머리에 쓰는 양식이다. 쓰개형은 삼국시대에 직물로 만들어진 건적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기록을 통해 화관 착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화관, 족두리를 비롯하여 대수와 어유미, 차액과 같은 다양한 쓰개형 가계양식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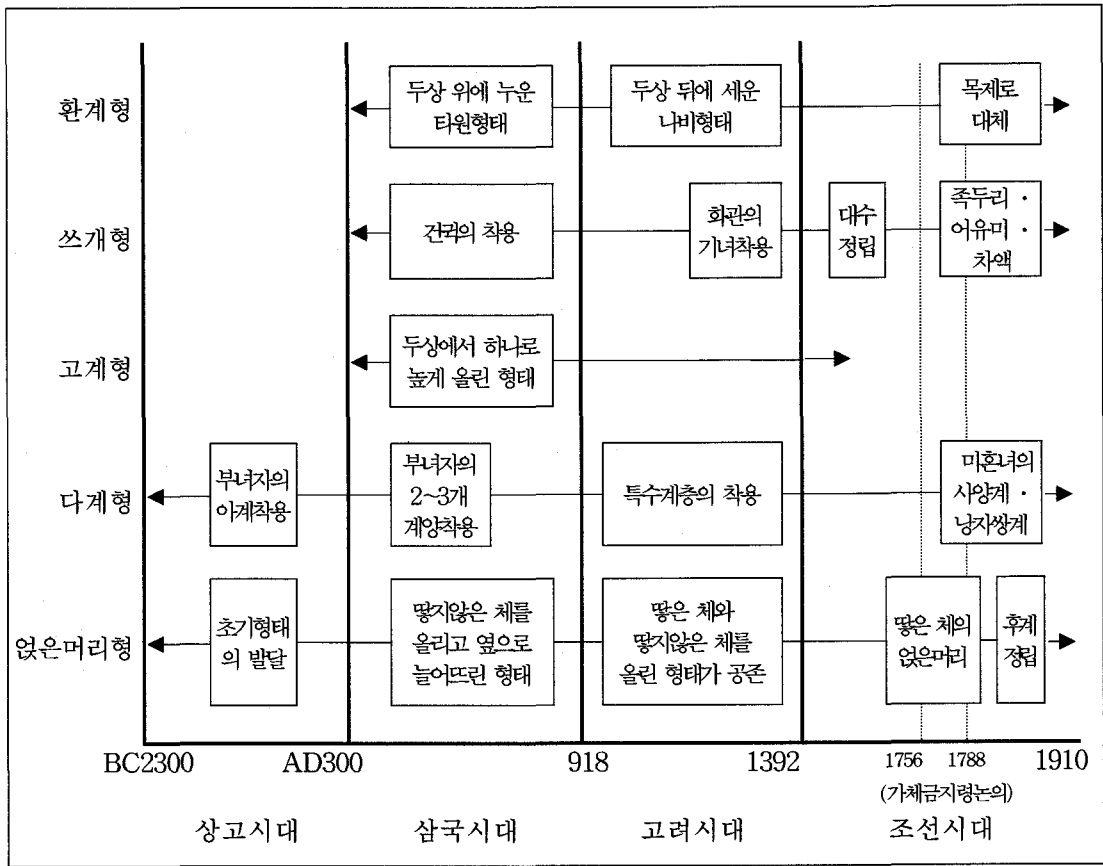
고계형은 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체를 이용하여 높게 올리는 체계(髻髻)이다. 고계형은 체를 땅지 않으며, 각종 장식을 더하였다. 고계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착용되었고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하였으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계형은 체를 이용하여 두 개나 세 개의 계(髻)를 덧붙이는 형태이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성인에게 착용되었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비롯한 기녀, 무녀(舞女)와 같은 특수계층에서 착용하였다.

없은머리형은 체를 더한 두발을 머리에 얹어 고정하는 양식이다. 시대별로 머리를 없는 형태가 차이를 보였는데, 삼국시대에는 땅지않은 체를 없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땅은 체에 의한 없은머리가 정착되었고, 《加髻禁止令》 이후 후계로 간소화되었다.

이에 유형별 가계양식의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과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가계 형태의 변천과정과 특성



2. 착장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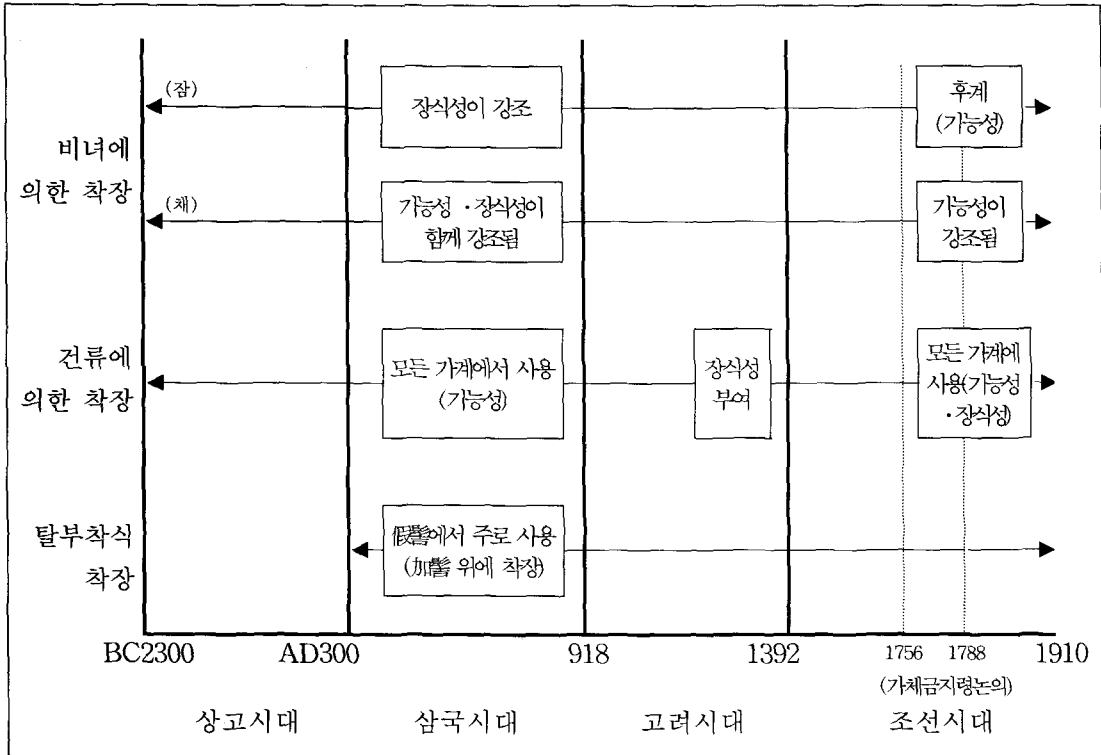
한국 가계양식에 있어 착장방법은 크게 비녀에 의한 착장, 건류(巾類)에 의한 착장, 탈부착식 착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녀에 의한 착장은 비녀의 형태에 따라 잠(簪)과 채(釵)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비녀를 가계에 삽입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모든 한국 가계양식이 비녀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착장되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비녀 중 잠(簪)은 삼국시대 안악3호분 여주인공 가계양식에서 확인되듯이 가계를 고정하기보다 잠두(簪頭)에 의한 수식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加髻禁止令》 이후 후계와 같은 가계양식이 정착되면서 잠(簪)은 독자적인 착장방법으로 폭넓

게 사용되었다. 채(釵)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상고시대에서부터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양한 채두(釵頭)가 발달되어 상고시대 이후 기능성과 장식성을 갖춘 부속품으로 애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채(髻)를 땅아 없는 안정된 가계양식이 성행하면서 채(釵)의 사용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건류(巾類)에 의한 착장은 가계를 건류로 묶거나 돌려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류는 가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직물을 뜻하며, 이는 시대와 가계양식에 따라 색과 길이, 문양을 달리하였다. 삼국시대의 건류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형태로 단지 가계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상류계층이나 하류계층이 모두 붉은색의 건류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체계에서 주로 착용되었

<표 2> 가계 착장방법의 변천과정과 특성



으며, 삼국시대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고, 폭도 넓어지면서 장식성이 부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덩기로 일컬어지는 건류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탈부착식 착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가계를 착장하고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특히 탈부착식 착장을 하는 가계(假髻)는 적절한 크기와 높이를 갖는 밑받침 가계(加髻) 위에 고정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환계형은 체계 위에 착장되었고, 조선시대 대수는 아계(丫髻)와 같은 체계 위에, 거두미의 환계는 어유미 위에, 화관 및 족두리, 차액은 얇은 머리형 위에 착용되었다. 특히 《加髻禁止令》 이후 화관과 족두리는 첩지와 같은 부속품 위에 착용되었고, 이는 첩지머리라는 새로운 가계양식을 발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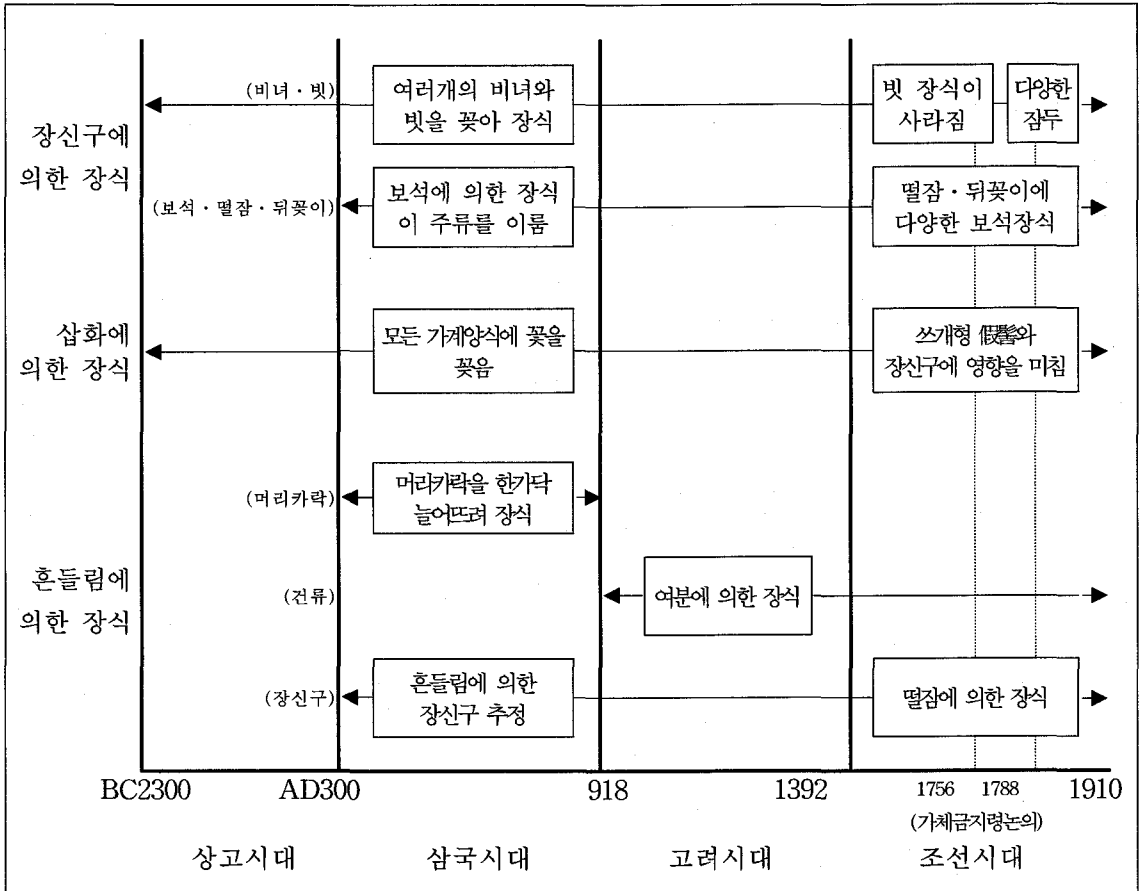
이러한 한국 가계양식의 착장방법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장식적 측면

한국 가계양식에서 장식적 측면은 장식도구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장신구에 의한 장식, 삽화(插花)에 의한 장식, 흔들림에 의한 장식이 있다.

장신구에 의한 장식은 비녀와 빗, 뿔잠과 뒤꽂이, 보석과 같은 장신구를 가계(加髻)에 더해 꾸미는 것으로, 한국 가계양식에서 가장 성행했던 방법이다. 한국의 모든 가계양식에 사용되었으며, 신분과 부에 따라 장신구의 차이를 보였다. 비녀는 상고시대 이후 장식을 위해 사용되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가계를 착장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되었다. 빗을 꽂는 풍습은 중국 당대(唐代) 회화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請賜冠服》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원간섭기 이후 퇴조하여⁶⁴⁾ 장식을 위해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았다. 뿔잠과 뒤꽂이는 비녀와 빗의 장식성 퇴조에 의해 조선시대에 성행

<표 3> 가계에 사용된 장식도구의 변천과정과 특성



하였다. 뿔잠은 각형, 원형, 나비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옥판(玉板) 위에 산호, 청강석, 진주, 꽃심(蕊)을 거미발로 물리게 만든다. 뒤꽂이는 얽은머리형 장신구로 애용되었다. 보석은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부분의 가계양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보석의 종류와 장식(加飾)하는 방법이 달리 나타났다. 특히 상고시대에는 영주(纓珠)를 직접 머리에 장식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보석을 잇는 방법(串珠裝飾)으로 착용되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장신구에 보석을 삽입하여 꾸며졌다. 삽화에 의한 장식은 꽃을 머리에 직접 꽂거나 꽃을 모방한 장신구를 곁들이는 장식방법이다. 삽화에

의한 장식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며, 고려시대에는 금, 옥, 대모, 구슬 등의 가공품으로 조화가 만들어지면서 가계에 본격적인 장식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삽화풍습이 장신구의 조형적 형태에 중요한 모티프(motive)가 되었으며, 화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풍속화를 비롯한 회화 등에서도 얽은머리에 삽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흔들림에 의한 장식은 두발을 한기다 늘어뜨리는 방법이나 건류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 장신구에 울동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흔들림에 의한 장식 중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방법은 삼국시대에서만 보이는데,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 회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장식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건류를 늘어뜨리는 방법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데 가계를 고정하는 건류의 길이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장식적 요소로 이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詩經』⁶⁵⁾의 '卷髮如蠶'(전갈의 꼬리처럼 굵어 휘날린다)로 표현될 만큼 대기에 의한 흔들림 장식이 성행하였다. 장신구에 의한 방법은 삼국시대 영주(纓珠)를 늘어뜨린 형태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보요(步搖)가 성행하여 삼국시대에도 흔들림이 표현되는 이러한 장신구가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⁶⁶⁾ 확실한 유물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떨잠의 가는 용수철 끝에 벌, 나비, 봉(鳳)을 부착하여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떨리도록 하였고, 흔들림에 의한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듯 한국 가계양식에서 장식도구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었으며, 장식적 측면에서 특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V. 결론

한국 가계양식(加髻樣式)은 시대상황과 요구에 따라 복식문화의 한 요소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당시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변천을 거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加髻)의 개념 및 시대별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가계양식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가계(加髻)는 소재와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가계(假髻)와 체계(髻髻)로 분류하였다. 가계(假髻)에는 건권, 화관, 족두리, 차액, 대수, 거두미, 어유미 등이 있으며, 체계(髻髻)는 체를 더해 꾸민 모든 가계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가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을 보이면서 전개되었고, 변천과 발달을 이루었다. 이에 한국 가계양식의 특성을 형태와 착장, 장식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 가계양식은 환계형과 쓰개형, 고계형, 다계형, 엷은머리형으로 구분되었다. 환계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착용되었으며,

형태와 소재에서 변화를 보였지만 한국 궁중 가계양식으로 꾸준한 지속성을 보였다. 쓰개형 역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착용되었으며, 후대로 갈수록 가계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계형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고, 조선시대에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계형은 상고시대부터 부녀자의 가계양식으로 착용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나 특수계층, 미혼녀의 양식으로 변천되었다. 엷은머리형은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형태가 유지되었으며,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체를 땅거나 땅지않는 엷은머리형이 공존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땅은 체에 의한 엷은머리로 정착되었다.

착장적 측면에서는 비녀에 의한 착장, 건류(巾類)에 의한 착장, 탈부착식 착장으로 분류되었으며, 비녀에 의한 착장은 잠(簪)과 채(釵)에 의해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착장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잠(簪)은 후계의 정착에 따라 기능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채(釵)는 엷은머리의 안정적 형태에 따라 착장에서의 활용도가 줄어들었다. 건류에 의한 착장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착용되었으나, 고려시대 이후부터는 길이가 길어지고 폭도 넓어져 장식의 요소가 가미되었다. 탈부착식 착장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계(假髻)에서 이루어졌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밑받침 가계(加髻) 위에 착용되었다.

장식적 측면에서는 장신구에 의한 장식, 삽화(插花)에 의한 장식, 흔들림에 의한 장식으로 분류되었다. 장신구에 의한 장식은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행하였는데, 고려시대까지는 대부분 비녀의 잠두(簪頭), 채두(釵頭)와 빗의 배부(背部)에 보석을 가미하여 장식되었다. 삽화에 의한 장식은 꽃을 머리에 꽂는 풍습에 의한 것으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애용되었다. 흔들림에 의한 장식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가계를 장식하는 방법, 건류를 늘어뜨리는 방법, 떨잠과 같은 장신구에 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 가계양식은 시대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유지하면서 변천과 발달을 이루었고, 복식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가계양식은 한국복식사의 한 측면으로써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가계양식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찰이 연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東史綱目』, 卷1, 上, 箕子朝鮮 元年. 教民編髮蓋首 君臣男女飲食居處之制 自此始爲.
- 2) 『東史綱目』, 卷1, 上, 箕子朝鮮 40年. 當時制作 雖無傳者… 婦女之首飾說者謂 殷之遺制 其或信烈也. 『星湖僊說』, 卷6, 萬物文, 髮髻. 羅濟句麗時以髮線首 分明是殷之遺制.
- 3) 『英祖實錄』, 卷70, 25年 9月(戊辰). 今之髻 印周副編次之遺制 不可非禮. 『星湖僊說』, 卷6, 萬物文, 髮髻. 周禮追師王后之首服副編次…合盛世風采宛.
- 4) 유봉영 (1960). 부녀발제의 변천. 향토서울, 3, pp. 14-51.
- 5) 김정자 (1982). 우리나라 여성의 발양에 대한 연구. 복식, 6, pp. 35-48.
- 6) 고미연 (1993). 한국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4-91.
- 7) 김용문 (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60.
- 8) 『英祖實錄』, 卷91, 34년 1월(庚子). 昔日命婦之入闕 皆從宮樣 今則混爲一套 至於加髻而極矣.
- 9) 김용문 (1992). 가계와 보요에 관한 연구-중국을 중심으로-. 복식, 18, p. 221.
- 10) 周汎,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pp. 49-50.
- 11) 『說文解字』, 第7, 下, 巾部. 婦人首飾.
- 12) 『釋名』, 卷4, 釋首飾. 鬢恢也 恢廓覆髮上也.
- 13) 周汎,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p. 49.
- 14) 杉本正年, 문광희 역 (1995). 동양복장사는고(고대편). 서울: 경춘사, p. 216.
- 15) 『芝峰類說』, 卷15, 身形部, 毛髮. 太元中婦人綰鬢傾髻以爲盛飾用髮既多不可恒戴乃先於木及籠上裝之名曰假髻今我國婦人之有假首蓋出於此.
- 16) 권계순 (1966). 우리나라 여자 髻樣考. 효성여대 논문집, p. 89.
- 17) 강순재 (1992).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p. 1.
- 18) 『瓶窩集』, 卷5, 18, 答尹進士孝彥斗緒. 妄謂假髻者 衆妾假髻磨里馬可以當之.
- 19) 이은주 (2002). 17세기 전기 현종 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 33.
- 20) 『瓶窩集』, 卷5, 18, 答尹進士孝彥斗緒. 妄謂假髻者 舉頭美於汝美.
- 21) 김용문 (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7.
- 22) 배정룡 (1982).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 아세아여성연구, 21, p. 278.
- 23) 최경순 (1986). 영·정조대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1.
- 24)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88.
- 25)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2年.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人蔘美髻.
- 26) 『三國志』, 卷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弁辰. 衣服潔清 長髮 亦作廣幅細布法俗特嚴峻.
- 27) 『後漢書』, 卷115, 東夷傳 第75, 東夷. 弁辰與辰韓雜居城郭 其人形皆長大美髮 衣服潔清 而刑法嚴峻.
- 28) 周汎,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p. 15.
- 29) 白鳥庫吉 (1926). 亞細亞北族の 辨髮に就いて(第1). 史學雜誌, 37(1), p. 4.
- 30) 『海東釋史』, 卷第20, 禮志3, 儀物, 章服. 三韓婦人 盤髮爲飾 女子卷而垂于後 然咸作鴉髻 餘則垂之.
- 31) 정삼식 (1997). 漢韓大辭典. 서울: 교유출판공사, p. 1757.
- 32)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972.
- 3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漢韓大辭典(1).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415.
- 34) 沈從文 (1997).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62.
- 35) 『北史』, 卷94, 列傳 第83, 新羅. 風俗 刑政 衣服 略與高麗 百濟同.
- 36)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98.
- 37)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 率美髮以線首 以珠綵飾之 男子剪髮鬻以黑巾.
- 38) 『太平御覽』, 卷781, 四夷部2, 東夷2, 新羅. 符堅建元十八年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美女 國在百濟東 其人多美髮 髮長丈餘.
- 39)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 婦人首加巾帽.
- 40) 『高麗史』, 卷128, 列傳 卷第41, 叛逆2, 曹元正. 見長髮者 必剪其髮 以爲髻 多至二駄.
- 41) 『補閑集』, 卷上, 25. 上行幸還 兩部妓女 着霓裳戴花冠 執樂迎蹕于昇平門外.
- 42) 『東國李相國後集』, 卷第5, 古律時, 次韻李學士和鷄冠花. 歧或髻兒髻丫 花心欲子便來吟… 『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時,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 別有女童白非歲 簇成仙隊善嬌歌…

- 43) 『東文選』, 卷18, 七言律詩, 次韻.
雙角歧丫綠髻 纔是離懷昏免乳...
- 44) 『東文選』, 卷46, 啓, 謝奇平章召赴禊宴啓.
雲鬢月眉之絕豔 目與心期.
『高麗史』, 卷71, 志 卷第25, 樂2, 百寶粧.
琵琶人把當頭髻雲腰素仍占絕風流...
- 45) 『東國李相國集』, 卷第3, 古律詩, 梁閣校見和復用前韻.
舞妓簪雲髻 遊人走鈿車...
- 46) 『高麗史』, 卷71, 志 卷第25, 樂2, 鮮佩.
頂如瓊玉髮如雲鬢...
- 47) 『成宗實錄』, 卷130, 12年 6月(甲子).
所謂城中好高髻 四方一尺者比也.
『燕山君日記』, 卷48, 9年 2月(庚戌).
故曰 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孝宗實錄』, 卷20, 9年 10月(癸未).
宮中高髻 四方一尺者.
- 48) 『英祖實錄』, 卷87, 32년 1월(甲申).
士大夫家奢侈日盛 婦人一加髻 輒費累百金 轉相夸效 務尙高大 上 禁之.
- 49) 『靑莊館全書』, 卷30, 士小節 第6, 婦儀1, 服飾.
近有富家婦年 方十三 辮髻重重 其舅入室 婦遽起立 髻 壓而頸骨折 侈能殺人.
- 50) 김용서, 안명숙 (1996).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p. 137.
- 51) 『世祖實錄』, 卷4, 2年 5月(己卯).
命宦冠田昉...尹鳳問曰今餘中宦冠狹小而又有箴未知何以穿着鳳等曰梳髮後從頂後分因左右髮毛交相結上作丫髻特冠冒其上而仍插箴.
- 52) 『宣祖實錄』, 卷152, 35年 7月(庚申).
翟衣之制 則必有九翟冠 然後方備其制 而今難卒備 五禮儀 有翟衣加首飾之文首飾 既從國俗磨鍊.
『仁祖實錄』, 卷46, 23年 7月(乙卯).
冊禮都監啓曰 嬪宮冊禮時既有翟衣則當有翟冠以我國匠人 不解翟冠之制 考制曆錄則 宣廟朝壬寅年 嘉禮時都監啓以 七翟冠之制非但匠人未有解知者各據等勿必須取質於中朝以終難自本國製造何以爲之云則 宣廟有冠則製造爲難之效且自癸亥以來雖經嘉禮以皆不用翟冠以髻髮爲首飾以成禮今則何以爲之答曰依癸亥以後禮爲之.
- 53) 『瓶窩集』, 卷5, 18, 答尹進士孝彥斗緒.
盛服假髻 外名婦着於汝美者.
- 54) 『正祖實錄』, 卷44, 20年 4月(癸未).
加髻之罷 欲爲祛奢 而單髻倍高.
- 55) 임영자, 구남옥 (1999). 18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 두발양식의 유사성 연구. 복식, 42, p. 213.
- 56) 『世宗實錄』, 卷53, 13年 8月(辛丑).
大護軍朴堧 畫會禮男樂冠服 倣唐景雲之舞綠雲冠...聖壽之舞花鳳冠...龍池之舞芙蓉冠.
- 57)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 舞童冠服.
會禮宴時芙蓉冠以紙構造 內裏染布外面用金銀各色彩畫芙蓉 左右彩珠纓落 又設紫的綉纓子印紫黃都多益.
- 58) 홍나영 (2000). 화관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p. 37-38.
- 59) 『受教輯錄』, 卷5, 刑典, 禁劑.
常女着...足道里者.
- 60) 『京都雜誌』, 卷之1, 風俗, 聲伎.
加里麼者方言罷也.
- 61)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妓女着黑褐加尼磨 醫女則着黑緞加尼磨 其狀如冊匣 載髻髻上.
- 62) 『京都雜誌』, 卷之1, 風俗, 聲伎.
內醫院醫女戴黑緞加里麼餘用黑布爲之...其形如書套可以罩髻.
- 63) 『增補文獻備考』, 卷之80, 禮考17.
趙克善曰 我國婦人 以玄錦或紫錦 全幅兩尺二寸 中屈之 爲兩重 以厚紙 帖其裡 而戴之 從額覆頂垂于後 以加肩背 謂之遮額 自光海中年來 率用玄錦爲表 以絮爲裡 以空其中 貼戴頭上 而爲之足頭里 一時好尙 遂變國俗 遮額之制 絕無矣.
- 64) 邢莉 (1995). 中國女性民俗文化. 中國檔案出版社, p. 159.
- 65) 『五洲衍文長箋散稿』, 第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今俗歸女 必爲髮髻 兩道繞首 屈其尾插於右 以其纓垂之 恰與卷裏 有旗之語 吻合.
- 66) 김문자 (2001).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 9(5), p. 35.